

남원시, '춘향(愛)인' 을 매출 900억원 목표

딸기·파프리카·토마토 등 15개 품목 통합 농산물 브랜드 철저한 품질관리·지속적 홍보 효과...맞춤 판매 전략 주효

남원시가 전국 5대 농산물 브랜드에 선정된 '춘향(愛)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매출액 900억원 달성과 전국 3대 농산물 브랜드 입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춘향(愛)인은 개별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 2013년 '정정 춘향골 남원에서 사랑을 담아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란 뜻을 갖고 탄생했다.

당시 딸기와 파프리카, 감자, 멜론 등 8개 품목의 유통을 시작으로 현재 토마토와 배, 오이 등 7개 육성품목까지 취급하고 있다. 15개 품목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유통된다.

현재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민과 취급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남원농산물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춘향(愛)인은 출범 첫해 607억원의 매출을 올려 도내 9개 조직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그후 2014년 725억원과 2015년 759억원, 2016년 766억원, 2017년 830억원, 2018년 860억원 등 매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시는 성공 요인을 정정남원의 자연환경과 철저한 품질관리, 지속적인 홍보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1인 소비자 시대에 발맞춰 농산물 소포장과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판매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해석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춘향(愛)인 브랜드를 홍보하고 농산물 선별비, 물류비 등 농민들이 소득을 제할 수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춘향골 딸기의 선별작업이 한창이다.

<남원시 제공>

있도록 실질적 지원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연매출 1000억원은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고창군, 고흥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승인

상반기 실시설계·행정절차 마무리 10월 착공 예정

고창군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조감도)이 국토교통부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고창군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지난해 4월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군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건설도시, 문화유산과 등을 망라해 도시계획변경,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군은 상반기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10월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사회복지시설지구에 들어서는 고흥자 복지주택은 LH 한국토주주택공사에서 설계·시공과 주택의 운영·관리를, 군은 사업부지 제공과 준공 후 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어르신들 주거공간에는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저층부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여가활동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건설된다.

여기에 '홀몸어르신 안심센터'를 설치해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관리실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령자복지주택이 건설되면 고창에 계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백세시대 누구나 편하게 머물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수확을 앞둔 레드향 재배 시설하우스를 찾아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 '레드향 곶' 농가 새 소득원 부상

33농가 10ha 재배...혈액 순환·감기 예방 탁월

"제주 한라봉·레드향 비켜라, 정읍산 '천년향' 나가신다."

정읍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레드향 곶'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만감류는 한라봉과 레드향으로 감귤과 오렌지 품종을 교배해 만든 아열대 작물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온에 민감해 겨울 추위가 심한 내륙지역에서 재배는 어

려왔다.

정읍시는 2013년 시험 재배를 시작으로 꾸준히 재배면적이 늘면서 현재 33농가, 10ha에서 레드향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라북도 공동으로 '레드향'을 '홍혜향'으로 '천혜향'을 '천년향'으로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주 수확 시기는 12~2월로 온주밀감에 비해 특유의 맛과 향기가 있고 저장 기간이 길어 인기가 높다.

비타민C 등 성분을 많이 함유해 혈액순환과 감기 예방에 탁월하며 피부미용 등에 좋다.

특히 레드향은 과실 표피가 얇고 매끄러우며 신맛과 단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평균 당도는 13브릭스를 기록하며 맛과 외형, 품질이 뛰어난 품종으로 꼽힌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정읍지역 농가에서 만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하우스의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팜 등의 지원을 통해 농가에 재배기술을 확산시켜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만감류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개인 지방세 신고 올해부터 지자체에서도 가능

순창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서만 가능하던 개인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2015년에 전환된 것과 다르게 개인지방소득세는 작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면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군은 군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분에 한해 군 소속 공무원을 직접 남원세무서에 배치해 국제 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군청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세무서와 군청, 둘 중 한 곳을 방문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하게 되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한 '무(無)관할 신고 제도'로 운영된다.

특히 홈택스(국세전자신고) 신고자의 경우 클릭 1번으로 위택스(지방세전자신고)로 연계돼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지방세 신고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군산시, 지방재정 상반기에 65% 신속 집행

군산시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시달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갖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도 재정집행 대상액은 이월예산을 포함 총 1조5245억원으로, 상반기에는 신속집행 정부목표인 60%를 초과한 65%를 집행하고 연말까지 최대 90%를 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소비·투자 부문과 10억원 이상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설명

제 실시 등 집중관리를 통한 재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서경찬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조속한 사업추진과 신속집행은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연초부터 사전준비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전라북도 주관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시, 북부권 주민 대상 '원스톱민원서비스'

차량등록사업소 등 합열읍 민원부서 북부청사로 이전

익산시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향상됐다.

익산시는 합열읍에 위치한 각 민원부서가 북부청사로 이전돼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합열지역에는 합열출장소와 차량등록사업소, 합열읍행정복지센터 등이 산재돼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불편요소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합열출장소와 차량등록사업소를 지난달 30일 북부청사로 이전을 완료했다.

합열읍행정복지센터는 13일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북부청사로 이들 기관들이 이전됨에 따라 건축, 지적, 차량등록, 등기부등본등 제증명 발급과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을 한 곳에서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북부청사로 민원부서를 이전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